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18.(수) 배포 시 배포 2026. 11. 18.(수) 14:00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 확산 차단 총력…관계기관 합동 대응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17일 관계기관 대책 회의 개최
- 손실보상 강화, 철저하고 지속적인 상황 관리 등 중앙정부-지방정부 역량을 결집한 전방위 대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이하 '농진청')은 11월 17일(화) 오후 5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ToBRFV, Tomato Brown Rugose Fruit Virus) 확산 차단과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기관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종자원을 비롯해 전국 도 농업기술원과 특·광역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11월 9일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를 공적방제 대상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국가 주도 방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방제 대상 농가에는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신속하고 철저한 방제를 위해 일제 조사(11.5.~11.25.), 확진 농가에 대한 방제 조치, 육묘장 관리 강화, 현장 대응 지침(농가간 출입통제, 작업도구 소독 철저 등) 마련 및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11월 16일부터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 대책 상황실을 확대 운영하고, 농작물 병해충 위기 대응 단계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진행된 공적방제 상황을 점검하면서, 발병 초기 바이러스 확산 신속 차단, 농가 보상의 적절성 여부, 중앙정부·지방정부 역량 결집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첫째, 방제 대상 농가에 대한 손실보상 강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공적방제 초기부터 농가에서 손실보상 강화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고, 이날 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한 의견제시 및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현장의견 반영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11월 18일에 긴급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 심의회를 개최하여, 농가 손실보상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보상금 선지급 체계도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둘째, 보다 정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지난 11월 5일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잠재적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세분화된 '정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적용함으로써,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조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중앙·지방 정부 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한 공적방제의 효과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농진청과 도원, 기술센터에 설치된 대책상황실에 추가하여 농식품부-시·도 농정부서가 참여하는 상황대책반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상황대책반에서는 조기 공적 방제 명령 추진, 육묘장 관리, 피해 작물 수급 관리, 농가 등 교육 지원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더불어, 공적방제명령 등 필요한 행정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농식품부·농진청 과장급 등을 지역담당관으로 지정해 지역별 방제명령 시행 상황과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넷째, 육묘장 관리를 더욱 빈틈없이 하기로 하였다.

육묘장에서의 감염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육묘장 관리강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지자체 육묘장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가지과 작물 재배여부, 의심 증상 유무 등 핵심 항목을 포함한 체크리스트를 제작·활용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할 예정이다.

다섯째, 바이러스 유입경로를 철저히 규명해 나가기로 하였다.

검역본부에서는 최초 발생신고 직후 예비역학조사를 시작으로, 2차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차 역학조사는 10월 22일부터 11월 8일까지 발생한 지역의 21개 육묘장과 2개 종자회사를 대상으로, 11월 16일부터 실시 중인 2차 역학조사는 9개 육묘장과 12개 종자회사 대상 실시 중이다.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종자·종묘업체 대상 유통이력 파악 및 유전자 정밀분석 등을 통해 바이러스 유입경로를 면밀히 규명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의 완전 박멸을 위해서는 재배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예찰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손실보상이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농가는 신속한 신고와 철저한 방제로 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는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는 식물바이러스이다. 이와 같은 사실이 정확히 언론에 보도되어 소비자가 시중에 유통되는 토마토를 안심하고 소비하는 것도 요구된다.

참고 1.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ToBRFV) 발생상황
참고 2.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ToBRFV) 특성
참고 3. 확산방지를 위한 리플릿

농식품부 <공동>	식량정책관 식량산업과	책임자	과 장	허동웅 (044-201-1831)
		담당자	사무관	백지현 (044-201-1843)
농진청	농촌지원국 재해대응과	책임자	과 장	정병진 (063-238-1040)
		담당자	연구관	경은선 (063-238-1041)
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식물방제과	책임자	과 장	송지숙 (054-912-0701)
		담당자	연구관	이흥식 (054-912-065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 고 1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ToBRFV) 발생상황

○ **발생 누계: 7개 시도 25시군, 총 162농가**

* (발생 시도) 전북(99농가), 경남(30), 충남(15), 부산(11), 전남(5), 충북(1), 경북(1)

참 고 2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ToBRFV) 특성

○ 학명: *Tobamovirus fructirugosum*

* 일반명: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Tomato Brown Rugose Fruit Virus*, ToBRFV)

○ 분류: **Tobamovirus 그룹**(입자 모양은 막대기형)

☞ **Tobamovirus 그룹에 속하는 바이러스로 전염과 확산이 빠름**

○ 기주: **토마토, 고추**, 잡초(망초, 서양메꽃) 등

○ 증상

- **잎에 모자이크, 과실에 황색원형무늬**를 나타내다가 병이 진전되면 **황갈색 무늬**와 주름을 만들어 **과실을 썩게 하거나 얼룩무늬** 등 **피해**

○ 전염: 농작업 도구 등에 의한 **접촉, 토양, 종자전염**

○ 특이사항

- 과실 괴사증상으로 토마토 생산량 30~70% 감소(Ling et al., 2018)
- 생육 초기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18일 이내에 병징이 발현됨
- 바이러스 증상은 토마토 품종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피해 증상

출처 : Luria 등('17)



<토마토>



<파프리카>

참 고 3 | **확산방지를 위한 리플릿**

농민 배포용

함께 실천하는 건강한 농업!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 (ToBRFV) 확산 방지 요령



예방 수칙을 꼭 지키고,
의심 증상은 바로 신고해주세요!

우리의 의지를 보여줘요!

국립농업과학원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ToBRFV) 피해 저감을 위한 대처 방안



지침을 따라주세요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 (ToBRFV)는 무엇입니까?

토마토·고추·파프리카 등 주로 가지과 작물에 감염하여 과실의 상품성과 수확량에 큰 피해를 주는 식물바이러스입니다.

ToBRFV는 어떻게 전파되나요?

농가 내 전파

결순 제거, 적심, 수확 등 농작업 과정에서 오염된 손, 장갑, 작업 도구 등을 통해 전파됩니다.

농가 간 전파

오염된 작업자의 이동과 오염된 운반 카트, 수확 상자, 작업 도구 등의 농가 간 이동 및 감염된 묘의 반입으로 전파됩니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6가지 주의사항



1. 건전한 종자·묘를 사용하세요
2. 외부인 출입과 농가 간 방문을 최소화하세요
3. 손·장갑·작업복의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세요
4. 작업 도구는 세척한 뒤 소독하세요
5. 운반 카트, 수확 상자, 작업 도구를 공동 사용하지 마세요
6.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작업을 멈추고 신고하세요

함께 실천하는 건강한 농업!

작물별 병징 예시 | ToBRFV 감염 시 토마토, 고추, 파프리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병징을 소개합니다.

토마토에 나타나는 병징


● 잎 주름 및 생육 이상


● 잎 병징


● 생육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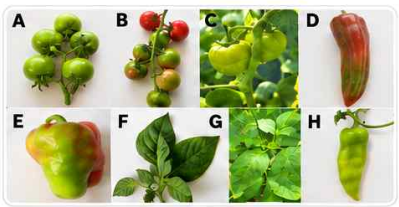

● 식물체 이상


● 과실 병징


● 과실 변색

※ 병징은 감염 시기·품종·재배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추·파프리카에 나타나는 병징



● 복합 병징 사례


● 잎 황화·모자이크


● 잎 이상 증상


● 과실 변형


● 과실 갈변 및 착색불량

※ 유사 바이러스병과의 구분 및 정확한 판별을 위해서는 유전자검사가 필요합니다.

병 발생 신고 및 Q&A

병 발생 신고 절차

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도 농업기술원**에 신고해 주세요.

신고기관

시군농업기술센터 | 도농업기술원

Q&A

Q1 ToBRFV는 사람에게 전염되나요?

A1 식물바이러스는 사람에게 전염되거나 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아울러, 감염 토마토를 섭취하여도 인체에 영향이 없습니다.

Q2 에탄올 소독이 가능한가요?

A2 에탄올로는 소독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오염된 손이나 작업 도구 등을 통한 접촉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A3 의심주 발견 시 즉시 신고하고, 사람-도구-농자재 간 접촉 전파를 최소화하며, 작업 전후 위생관리와 오염물 관리에 주의합니다.